

“선생님은 무섭고 부모님은 공부만 강요”

주눅 들어 크는 국교생 어린이 09.94.8.19

여자어린이보다 남자어린이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더욱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단법인 어린이문화진흥회가 마련한 ‘어린이의 스트레스와 가정, 학교 환경’ 세미나에서는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를 연구,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의 6개 국민학교 4~6학년까지의 어린이 1천1백8명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겪는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73.9%의 어린이가 ‘부모님이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편’이라고 답했지만 59%의 어린이가 ‘부모님이 지나치게 일에 간섭하고 공부만 강요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특히 여자어린이보다 남자어린이가 스트레스를 더

더 더 거리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를 진행한 심리학 박사 양혜영 씨는 “부모가 딸보다 아들에게 더 간섭하고 야단치고 공부를 강요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딸보다 아들이 더 반응을 보이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두 가지가 다 작용하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여자어린이들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보다 친구나 자신의 성적, 외모에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남녀국민학생의 가장 큰 고민거리일 뿐 아니라 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따라서 부모관계 스트레스의 원인도 되고 있다. 또 학교환경에서는 61.8%의 어린이가 ‘선생님이 무섭고 편애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